



SK 텔레콤, 모바일방송 가입자 10만 돌파

SK텔레콤(대표 표문수, www.sktelecom.com)의 멀티미디어 모바일 방송 ‘네이트에어(NATE Air)’가 상용서비스 개시 두 달이 채 안돼 가입자 10만을 돌파했다.

SK 텔레콤은 23일 자사의 모바일 방송 ‘NATE Air’ 가입자가 상용서비스 초기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현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6월말에는 30만명에 달해 새로운 방송매체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NATE Air’는 원하는 채널에 가입하면 프로그램이 도착할 때마다 TV 모양의 아이콘을 수신되어 고객이 해당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Push’ 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NATE Air’는 9개의 채널에서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Free TV’나 ‘Apple TV’와 같은 맞춤채널과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음악, 영화, 러브, 코믹, 뉴스, 영어, 성인 등의 장르별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NATE Air’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 반응조사에 따르면, 장르별 채널보다는 맞춤채널의 선호도와 프로그램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Free TV는 18세 ~ 23세의 TTL 세대가, Apple TV는 25세~ 35세의 UTO 세대가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채널 선호도의 차이를 보였다.

NATE Air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이동전화 상에서 NATE에 접속(My홈·강력추천·NATE Air)하거나 NATE 홈페이지(www.nate.com 또는 air.nate.com)에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Free TV, Apple TV의 경우 월1,200원, Banana 성인을 제외한 장르별 채널은 월 700원, Banana 성인 채널은 월 2000원이며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된다.



포스데이터-인텔-오라클, 리눅스 병렬처리 컴퓨팅 솔루션 개발 협력

포스데이터(대표 김광호, www.posdata.co.kr)와 인텔코리아, 한국오라클 등 3사는 지난 30일 포스데이터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광호 포스데이터 사장, 김명찬 인텔코리아 사장, 윤문석 한국오라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리눅스기반의 ERP 솔루션 개발 및 공동 비즈니스에 대해 협력키로 하고 이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력의 첫번째 사업으로 3사는 인텔의 아키텍처를 사용한 리눅스 병렬처리 컴퓨터 상에서 오라클 ERP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사는 포스데이터의 리눅스 병렬처리 컴퓨터 개발 노하우와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 Oracle9i RAC와 인텔 아키텍처의 장점을 결합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3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사별 전문기술진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향후 비즈니스를 위해 마케팅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유닉스 기반 솔루션과 새롭게 구축되는 리눅스 기반 솔루션의 성능 비교 데이터를 작성하여 앞으로의 마케팅 활동에 이용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인도(印尼)에 CDMA 시스템 공급

삼성전자(대표 윤종용, www.sec.co.kr)는 인도네시아 유/무선통신 사업자인 라텔인도(Ratelindo)사와 CDMA2000 1X 시스템 5만 회선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권 CDMA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라텔인도사의 금년 CDMA 사업은 총 15만회선 규모로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대도시 반동에 CDMA2000 1X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반동 지역은 서부 자바의 장비공급권을 획득한 삼성전자가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 지역의 무선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라텔인

도사는 2005년 까지 170만 회선을 증설할 계획이며,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과 함께 향후 상당량의 추가 장비공급이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이번 CDMA시스템 공급은, 인구 2억1천만 명에 유·무선 통신 보급율이 5%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점과 함께, GSM 위주의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에서 CDMA2000 1X의 우수한 통화품질과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CDMA벨트를 확대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산텔레콤, 데이콤 VDSL 시범서비스용 장비 공급

유·무선 통신장비 업체인 기산텔레콤(대표 박병기, www.kisantel.co.kr)은 데이콤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시범서비스용 장비 6000포트 규모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장비성능시험(BMT)에는 기가링크·다산네트웍스·다인텔레콤·코어세스 등 5개사가 참여했으며, 다인텔레콤을 제외한 4개사의 가격입찰을 거쳐 기산텔레콤이 공급권을 단독 수주했다.

회사가 공급할 ‘스피드업 2000’ 시리즈는 VDSL 가입자 모뎀인 ‘스피드업 2000u’와 집중화 장비인 ‘스피드업 2000c’로 구성된다. 이 장비는 기존 전화선을 이용해 1.3km 반경 내에서 양방향 최대 15Mbps의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

기산텔레콤은 일본 NTT사의 BMT를 통과에 이어 이번 데이콤 프로젝트 수주로 국내외 VDSL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판단, 이 분야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산텔레콤은 국내의 호텔 대상 인터넷 사업자인 루넷에 VDSL 상용서비스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LG전자, 중국 CDMA 시장 선점에 마케팅 총력

LG 전자가 중국을 국내 및 미국과 함께 이동단말 사업의 3대 주력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중국 단말기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생산·판매는 물론 R&D 및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전 사업 부문을 하나로 묶는 현지 완결형 사업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LG전자의 강점인 디자인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중국 CDMA 개통과 함께 진출한 CDMA 단말기 사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한국의 명동'으로 불리는 북경 왕푸징(王府井) 거리에 40m 와 28m 2면으로 구성된 대형 LED 옥외광고판을 설치했다.

왕푸징(王府井) 거리는 북경 뿐 아니라 중국 최대의 상업 거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하루 유동인구가 300만 명에 달해 기업 브랜드 광고의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중국지역에서 cdma2000 1x, GPRS 휴대폰 등 앞선 제품력과 폴더형 등 디자인 특화 제품 등을 기반으로 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2005년까지 현지 메이저 플레이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LG 전자 조준호(趙俊鎬) 정보통신사업총괄 전략담당 부사장은 "LG전자의 이동단말사업은 '1등 LG'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LG전자가 만든 단말기가 중국 시장에서 노키아·모토로라에 이어 명실상부한 '톱 3'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KTF, 월드컵 외국어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시

2002 FIFA 월드컵 공식 이동통신사인 KTF(대표 이용경, www.ktf.com)는 지난 29부터 <월드컵 매직엔 외국어 서비스>를 매직엔 무선포탈과 멀티팩을 통해 동시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주요 무선 콘텐츠로는 ▲ 개최도시 소개, 주변상권정보,

한국 투어가이드, 월드컵 국내외 주요기사/속보, 월드컵 게시판/동호회/채팅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교통/속소 정보의 경우 공항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위치 간 거리/교통편/요금 등이 상세히 나와 있으며, 국내 호텔의 세부 정보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와서도 미국 중시(다우, 나스닥)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 중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MSN메일을 휴대폰을 통해 수/발신할 수도 있으며, 한국 사람들과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츄에이션(상황) 별로 한국어회화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도모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매직엔에 접속하거나 <2002 FIFA worldcup> 을 클릭한 후 해당 언어(영어 또는 중국어)를 선택해 각 콘텐츠를 이용하면 되고, 무선테이터 요금 외 캐릭터/벨소리 등의 콘텐츠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멀티팩 이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도 된다.



파워콤, HFC(Hybrid Fiber Coaxial) 망(網) 기술 분야 우수논문 공모

파워콤(대표 서사현, www.powercomm.com)이 HFC CHybrid Fiber Coaxial)망(網) 기술분야 우수 논문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주제분야를 전공하고 있거나 또는 관심 있는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공모분야는 HFC망을 이용한 초고속 가입자 망 기술분야, HFC망 관리 및 감시 시스템 기술분야, HFC망 적용 장비 및 서비스 기술분야 (케이블모뎀, 디지털방송, 셋톱박스, On demand solution 등) 기타 HFC망 관련 분야이며, 논문 제안서(요약문, A4용지 2매 이내)를 접수하여 심사후 제안서 적합자를 선정 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서 적합자에 한해서 논문을 작성한 후 일반 논문의 경우 국내 · 외 학회지 또는 학술지에 게재 후 제출, 학위논문의 경우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2002년 6월중 (주)파워콤(www.powercomm.com) 인

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장려금 내역은 박사학위 논문 300만원(2편), 석사학위 논문 200만 원(8편 100만원 포함, 지도교수 지원금), 학술지 게재논문 30만원 (20편)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파워콤 기술지원팀 김승철 (kimsc@powercomm.com, ☎02-6250-2341)로 하면 된다.



대우정보시스템 · 보이스웨어, 음성인식 솔루션 사업 ‘공조’

대우정보시스템(대표 박경철, www.daewoobrenic.com)은 음성 기술전문업체 (주)보이스웨어(www.voiceware.co.kr 대표 백종관)와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솔루션의 공급 및 기발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대우정보시스템은 자사에서 추진하는 시스템통합(SI)사업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에 보이스웨어의 솔루션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이스웨어는 자사의 음성 솔루션을 국내외 관공서 및 금융, 제조,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솔루션 보급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웨어 백종관 사장은 “국내 음성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왔으나, 본격적인 음성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효용성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대우정보시스템과 사업 공조는 여러 면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